

금융독서포럼 창립모임

일 시; 2013. 7. 15(월) 19:30

장 소; 한국거래소 KRX 아트리움

축 사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뜻 깊다, 감명 깊다,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또는 금융시장 전체가 실물경제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뒤쳐져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화두를 가지고 저는 평생을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자본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뛰고 해도 자본규모에 있어서 선진국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우증권의 자기자본이 3~4조하는데, 골드만삭스는 100조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만 하더라도 50배까지 했거든요. 자기자본의 50배, 그러면 5천조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배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대우증권이 자산의 규모는 10조도 안되는데, 골드만삭스는 5천조나 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본의 규모의 차이가 제일 핵심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런 독서포럼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 이게 틀렸구나, 결국 지식의 부족이구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의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견희 회장께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기 전에 일본에서 온 기술자가 10년 동안 삼성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가면서 이견희 회장님한테 리포트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10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데, 회장님이 이것을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하고 남겨놓은 리포트가

K리포트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정리정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견희 회장께서 일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가면서 비행시간 내내 수행하는 비서들한테 오더를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정답을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흔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 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대답을 계속 가져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행시간 내내 답을 못 얻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에 가서도 이야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같이 동행했던 홍라희 여사께서 임원들 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왜 빨리 답을 안 주십니까 하니까 주신 답이 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철학적인 답을 주셨어요. 그게 핵심의 키워드인거죠.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핵심의 키워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발전이 안 됐는가 결국 지식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본시장법이다 또 최근에 개정법이다 또 동북아 금융허브다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또 큰 것으로 보면 거래소시장 통합 같은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레벨 업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제도가 탄생을 했지만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변죽만을 울렸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지식의 부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시장 개방하기 전에 일본이나 미국 또는 런던 등을 수차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출장을 갔다왔는데, 우리는 갔다 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금융독서포럼의 창립총회지만, 지금 이 순간 조금 전에 김정수 대표님께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거래소에서 태동을 하게 되고 지금은 거래소를 떠났지만 신은철 부회장님께서 두 분이 이렇게 주도를 하셔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신은철 부회장님과 같이 나가고 있는 MBS (Management Book Society)라는 독서클럽이 있습니다. 이 독서클럽은 1995년에 태동을 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나은행 본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합니다. 20강을 하면 1기가 끝나고, 지금 36기째 하고 있으니까 만 18년이 됐지 않을까. 서울대 조동성 교수가 하시는데, 주로 저자의 책을 주고 저자의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 때부터 이번 기에는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제학원 백병원의 백낙현 이사장님께서 (의사시면서 설립을 하시고, 지금 연세가 88~89세이신데) 매주 따님의 손을 잡고 와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매주 월요일 그런 강의를 들으셨으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개인에 대해

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창립멤버로 참석하셔서, 앞으로 저희야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이 모임에 참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또 다른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보면 “사람을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표어가 있지요. 좋은 말입니다. 저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창조’가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창조도 습관의 산물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책을 매일 읽거나,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우리도 매주 월요일이 되면 술 마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책 읽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에 투자를 하게 되고 투명한 영혼이 되면 천 년 앞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의 다양한 면을 알려주는 것은 저는 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시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항상 바보는 결심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독서클럽이라든지 책에 대해 결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결심도 하신 분들이고 행동에도 옮기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디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 번을 기도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행동이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결심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신 여러분들,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금융독서포럼을 계기로 해서 더 크게 큰 발전이 있으시길, 또 우리 금융독서포럼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정수 대표님과 신은철 부회장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